

# 사진 속에 나타난 건축이미지 고찰 -19세기 여명기 사진을 중심으로-

김혁기\*

<sup>1</sup>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 A Study on the Architecture Image in Photography -Focused on Modern early Photography of 19th Century-

Hyeok-Ki Kim<sup>1\*</sup>

<sup>1</sup>Divisio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요 약** 사진은 1839년에 탄생한 이후 160년 동안 다양한 이미지들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외부 현상 자체와 거의 동일한 실체에 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삶 가운데 다양한 시각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고고학적, 지리학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창조적인 감각을 이용한 문화적 예술적 이미지를 함께 표현한다. 본 논문은 사진의 발달 과정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도시와 건축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도시와 건축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관점, 방법, 개념들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한다. 특히 19세기 여명기의 사진을 통해 사진이 예술적인 표현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도시와 건축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Photography has been a way of recording a range of images throughout the previous 160 years since its birth in 1839. It has also included the observations and records on the subjects, which is almost same as reality in its outward appearance, various looks of a city and architecture in the daily lives at these places. These pictures provide archaeolog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beyond time and space as well as expressing cultural and artistic images using the creative senses. This thesis analyzes the images of a city and architecture as various angles along with development process of the photograph. The purpose is to examine what viewpoints, methods and concepts have been used to observe the city and architecture. The study will show that photography is a means of artistic expression and a means of indirect understanding of a city and its architecture by early modern photography of the 19th Century

**Key Words** : Architecture Image, Photography, 19th Centur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눈앞에서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물의 상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 암실에 도달하면 반대편 벽에 축소된 실체의 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채 맺히는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라는 바늘구멍 사진기 원리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원래 ‘어두운 방’이라는 뜻으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부터 알려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처음으로 이 마술적인 도구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지오반니 바티스타 델라 포르타(Giovanni Battista della Porta)는 카메라 옵스큐라에 최초로 렌즈를 장착하여 선명한 영상을 얻었다.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미지를 알게 되었고 이 장

\*Corresponding Author : Hyeok-Ki Kim(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Tel: +82-10-8747-8805 email: khk21034@kut.ac.kr

Received February 24, 2014

Revised March 18, 2014

Accepted July 10, 2014

치는 자연관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를 고정된 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빛에 민감한 물질들을 발견해야 했고 마침내 1839년 공식적인 최초의 사진인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이 발명되었다.

그 후 사진은 1839년 그 탄생 이래로 지난 160여 년 동안 줄곧 이미지를 기록하는 수단이었으며 외관상 실제와 거의 똑같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와 건축의 다양한 모습들과 그곳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담아내었다. 이 사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고학적·지형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시각으로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표명하였고 창조적 감각으로 문화·예술적 이미지들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진의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건축의 이미지를 사진의 발달과정과 함께 분석하여 어떤 관점과 방식, 그리고 개념으로 도시·건축이 관찰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시기 사진의 물리적인 개념과 예술적인 개념의 형성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틀 안에서 도시·건축 사진을 살펴봄으로써 그 격변의 시대 속에 위치하는 도시와 건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사진의 역사를 시대별로 크게 구분해 보면 19세기는 사진의 탄생으로 시작 다양한 기술적 발달과 실험을 한 ‘여명기사진’으로 볼 수 있고,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은 위대한 거장들이 예술혼을 불사른 ‘근대사진’, 제 2차 세계 대전부터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직전까지는 신화적 사진가들이 격동의 시대를 다룬 ‘현대사진’,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뉴 웨이브 사진가들이 사진을 가장 강력한 우리 시대의 표현 매체로 다룬 ‘후기 현대사진’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1].

본 논문은 19세기 사진의 탄생과정부터 시작하여 여명기 사진을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는 최초로 사진이 발명되고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발달하여 고정된 정적인 사물 뿐 아니라 동적인 대상까지도 이미지로 고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화와 분리되어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서양 열강들이 미지세계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충돌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근대적인 시각의 자각으로 인상파를 비롯한 근대 예술이 태동하여 발전하였던 시기였고 도시에 있어서도 위생적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의 근대화를 위한 대대적인 도시개조 사업과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도시의 산업화로 심각한 도시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시계획들이 수립되고 일부 실현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도 철과 유리 등과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의 도입으로 고전 건축의 공간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공학적인 대 공간을 실현하였으며 마천루의 탄생으로 도시의 고전적인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격변하는 시기에 사진가들은 거의 모든 현장에서 그와 같은 대상과 사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게 되었다. 거기에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탁월한 고고학적 기록과 사회학적 관찰과 예술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건축이미지들을 시대적으로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그 사진의 내용과 특성을 밝히고 그 과정을 통해 건축이미지들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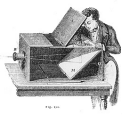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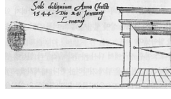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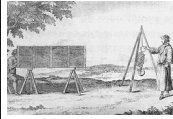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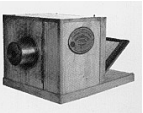
## 2. 건축사진의 특성

### 2.1 사진의 탄생

사진은 빛에 반응한 화학성분 혹은 상을 고정시킨 화학적 원리에 의해 최초로 탄생하였다. 즉 빛이 화학적 감광 물질 위에 자연적으로 그린 그림이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카메라보다 화학적인 원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2]. 또한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3]를 통해 영상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발명되어 사진의 발견이 있었고, 사진의 발견 이후 다양한 사진술이 뒤따랐다. 최초 사진의 발명가로 알려진 조셉 니엵스(Joseph Niepce)나 공식적인 사진 발명가로 알려진 다게르(Daguerre)들은 처음에 ‘사진(빛그림)을 발견했다’고 말하였으나 곧 자신의 발견을 발명으로 고쳐 부르게 된다. 이는 사진을 발명품으로 돌려야 시대 정황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의 발명이 니엵스를 거쳐 사업가 다게르에 의해 완성한 사진은 마침내 장 프랑수아 아라고(J.F.Arago)에 의해 빛을 보았다. 그는 국가가 다게르의 사진 특허권을 매입하여 얻을 경제적 실익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1839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로서 공식적인 사진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4].

Principle of Camera Obscura	Type of Camera Obscura	First Motion Picture Camera
Room Obscura (Kircher,1646) 	Desk - Camera Obscura 	Niepce Camera 
Drawing landscape image through the pin hole in dark cabinet	Drawing lighting image that make by principle of opaque camera	Invention of Niepce that make first picture(Photography) at 1826
Illustration of Camera Obscura 	Potable - Camera Obscura 	Daguerreotype Camera 
Alhazen illustrated method of observe a solar eclipse by obscura in Arabia	William Chesden used potable camera in outdoor at 1733	This is first camera that Alphonse(brother in law of Daguerre) make as series

[Fig. 1] Birth of Camera

### 2.2 사진의 개념



사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 중의 하나는 사진이 손이 아닌 눈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복제를 통한 세계의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대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의 기록뿐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각도를 조절하고 특정한 각도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맨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원작의 잠재된 측면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 후자는 광범위한 세계의 복제 과정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작이 사진의 형태로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사람들과 쉽게 만날 수 있게 하였다. 즉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러한 두 개념은 객관적 시각의 기록과 주관적 시각의 표현이라는 사진의 주된 두 가지의 활동영역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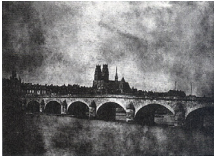
### 2.3 건축사진의 형성과정

니세포르 니엡스(Nicephore Niepce)는 둘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들을 보면서 석판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어두운 방에 멧힌 광학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연구를 하다 1826년경 주석판에 역청을 입혀 만든 감광판을 활용하여 상을 고정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사진은 그의 고향인 샬롱 쉬르 손(Chalon-sur-Saone)의 르 그라(Le Gras)에 있는 자신의 집 창밖의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 그는 이 사진에 ‘헬리오그라피(Heliographie)’ [5]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현존하는 최초의 사진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시에 이 사진은 건축물의 경사지붕과 벽체 윤곽이 거칠게 표현된 최초의 건축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다게르(Daguerre)는 1838년 니엡스의 방법을 개량하여 완전한 형태의 이미지를 얻게 되며 이 발명품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6]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했고 1839년 발명을 공식으로 공표했다. 그는 다게레오타입의 시연을 위해 파리 시가를 촬영했는데 노출이 오래 걸렸던 까닭에 사진에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건축물들만이 정지된 이미지로 촬영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노출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초기 다게레오타입의 사진들은 주로 건축물에 관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니엡스와 다게르가 이미지를 고정하는데 성공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탈보트는 유사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미 1820년대 초부터 카메라 옵스큐라를 가지고 광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833년 종이 위에 유제를 발라 나뭇잎의 윤곽을 복제해내는데 성공했고 1835년 같은 방법으로 여러 장의 음화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여 이에 ‘포토제닉 드로잉(Photogenic Draw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41년에는 영국정부로부터 ‘칼로타입(Calotype)’ [7]이라는 공식명칭으로 특허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술로 건축물이나 정물, 예술작품 등을 촬영하여 전집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Title	Overlooking Picture from Le Gras House	Notre-Dadame church & Paris Street
Image		
	Nicephore Niepce (1826)	L.J.-M. Daguerre (1838)
	The first Photography that present roughly as name of Heliographie	Present Paris street and architecture in detail as Daguerreotype

Title	Paris Street	Orleans Bridge
Image		
	L.J.-M. Daguerre (1838)	W. H. Fox Talbot (1843)
	Present silence image of Paris by exposure during 1 hour as Daguerreotype	Present landscape of Orleans Bridge and street of Paris as Calotype

[Fig. 2] Birth of Architecture Photography

이와 같이 사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니엡스, 다게르, 탈보트에 의해 담겨지기 시작한 건축이미지는 그 후 각 시대를 관통하며 건축을 다양한 관점에서 담아냈다. 19세기 여명기에 있어서는 대상의 기록이라는 측면이 강하여 다양한 건축적 상황을 이미지로 기록하였으며, 20세기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는 대상의 표현이라는 측면이 우세하여 다양한 시각을 통해 건축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3. 여명기 건축사진

#### 3.1 여명기 사진의 개념

19세기 사회는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1764년 영국의 산업혁명, 1789년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18세기의 세 가지 세계사적 혁명을 등에 업고 새롭게 피어난 근대 사회의 출발점이었다. 사진은 그 시대 과학의 승리이자 산업혁명의 결실이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산업의 꽃으로서, 기술 중심적 공업의 핵으로서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예술수단과 도구로써 근대사회와 문화를 아우르는 밀거름이자 시대 풍경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산업자본주의가 발생함에 따라 모더니티가 촉발한 사회적·경제적 변형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조르주 오스망(Georges Haussmann)남작은 파리에서 ‘오스망화’[8]로 알려진 도시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오스망화는 파리의 기간시설을 원활한 도시 통행을 위해 현대화할 목적으로 대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하수시설을 만들고 중앙시장을 재건축했다[9]. 19세기 후반의 ‘대로문화boulevard culture’는 오스망화의 관점에서 개조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도시적 관습의 융합이었다. 사회적 삶은 거대한 대로 위를 확보했고 카페, 극장, 백화점, 호텔, 파사주[10],

신문들은 시민들을 대로로 끌어들이었다. 따라서 대로는 일상의 삶이 구경거리로 묘사되는 축제적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도시 재구축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가로와 건축물에 대한 기록도 사진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1839년 장 프랑수아 아라고(J.F.Arago)가 다게르의 사진술을 국가가 매입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1]에는 첫째, 다게르의 발명품이 창조적 발명품인가를 검토할 것. 둘째, 고고학과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 셋째, 사회에 실질적으로 유용한가를 검토할 것. 넷째, 사진술이 과학발전에 어떠한 유리한 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등 네 가지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상의 사안들은 주로 사진의 유용성에 관한 사항들로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사회에 사진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유용성의 개념들은 다양한 세계를 관찰하고 기록한 여명기 사진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 3.2 여명기 사진의 경향

여명기의 건축사진은 사진의 본질적인 개념인 관찰과 기록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지배했다. 이는 당시 사진술의 한계와 사진이란 복제에 의한 현실의 재현일 뿐이라는 개념의 한계에 의해 아직 표현 예술로서의 확실한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건축사진의 경향을 크게 대별해 보면, 고고학적 관심으로 생겨난 중동과 동양의 유적지 건축물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가로와 건축물에 대한 인문학적 기록, 전쟁 등으로 인한 군영지와 지형학적 미개척지 그리고 도시의 사회학적 기록,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기술공학적 기록 사진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아라고가 의회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진의 유용성 중에서 두 번째 고고학과 예술에 대한 기여와 세 번째 사회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개념의 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사진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여명기 건축사진의 작품분석



##### 3.3.1 유적지 건축물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사진

사진의 가능성은 19세기 중엽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와 만나게 되었고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사진으로 인해 전 세계를 각자의 집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

은 인간 경험의 한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각종 원정대와 고고학적 탐사단 덕분에 상세한 여행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유럽, 중동, 아시아, 극동, 아프리카는 이러한 여행사진의 무궁무진한 장소가 되었고 특히 그곳의 건축과 기념물은 고고학적 민속학적 관심과 함께 주된 테마가 되었다[12].

1) 이집트의 고대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프란시스 프리드(Francis Frith)는 1856년에서 60년 사이에 이집트와 과거 유대민족의 자취가 남아 있는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1858년에는 사막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 40X50센티미터의 대형 카메라로 시리즈 작업을 했다.



문학가이자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막심 뒤 캉(Maxime du Camp)은 소설가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와 함께 1849년부터 1852년까지 중동지역과 이집트로 여행하며 촬영하였다. 뒤 캉은 거대한 유적 앞에 그가 고용한 누비아 출신의 이집트인을 자주 세워 놓고 촬영했는데 이는 사람의 키와 대비시켜 유적의 웅장한 스케일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블랑카르-에브라르(Blanquart Evrard)는 이중 122매 사진을 1852년 앨범으로 제작하였다[13].



Title	Gate of Hypostyle hall	Porch of Ramses II
Image		
	Maxime du Camp (1850)	Francis Frith (1857)
	Present reality of architectural texture by using light and shadow	Present thickness of wall and depth of space by overlapping gates

[Fig. 3] Ancience Egypt Architectures

2) 그리스 건축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축적 관심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많은 미술가나 건축가들이 회화적인 소묘화나 동판 그리고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표현하였다. 화가 겸 건축가인 비올레 르 뒤크(Viollet-le-Duc)는 연필과 세피아 조색으로 소묘화를 그렸으며 과학자인 존 허셸(John Herschel) 경은 카메라 루시다를 이용한 연필 소묘화를 그렸다[14]. 로트비니에르(Lotbiniere)는 세부묘사가 뛰어난 동판을 제작[15]하였으며 윌리엄 스틸먼(William Stillman)은 아



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섬세하게 사진으로 인화하였다.

Title	Temple of Juno(Agrigento)	Temple of Hera(Paestum)
Image		
	John Herschel (1824)	Viollet-le-Duc (1836)
	This is the picture by using Camera Lucida at the bgrinning	Present space of peridrome by perspectival geometric composition

Title	Gate of Acropolis Temple	Temple of Parthenon
Image		
	P.G.Jde Lotbiniere (1839)	William Stillman (1869)
	Change photography of Daguerreotype into Aquatint with detail	Present perspective by shadow of columns of stone temple

[Fig. 4] Ancience Greek Temples



3) 중동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적을 사진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사진가로서 살츠만(Auguste Salzmann)을 들 수 있다. 특히 성벽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기록함으로써 성벽의 축성시기를 밝히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적 성취를 이뤄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적을 화가와 고고학자가 지니는 상이한 시각 속에 조화롭게 담아냄으로써 매우 뛰어난 미학적 성취도를 보여 주었다.

Title	Jerusalem	Jerusalem
Image		
	Auguste Salzmann (1855)	Auguste Salzmann (1854)
	Present various architectural form and space by overlapping times for press	Improve of historical value of photography by detailed records of castle wall

[Fig. 5] Ancience Jerusalem Temples



4) 19세기 서양인들은 제국주의적 시장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사진을 이용하는 순수하게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사진으로 이국풍물을 기록하는 간에 이국적인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사무엘 본(Samuel Bourne)은 1863년 히말리아를 등정하며 인도의 유적지를 촬영하였으며 영국 여행가 존 톰슨(John Thomson)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를 여행하며 도시환경과 건축물의 기록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대문명의 위용을 촬영하였고, 그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방식들도 관찰하여 기록하여 사진을 기록의 언어로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사진에는 복식과 일상의 소품, 주거환경 등이 담겨 있고 항상 거리를 무대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복잡하고 무질서한 길거리를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담아 사회학적 다큐멘터리의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Title	Hindu Temple	Temple of Cambodia
Image		
	Samuel Bourne (1865)	John Thomson (1870)
	Various Hindu Temples around Ganges river at Banaras in India	Take a picture of landscape and ruins for album in Cambodia

[Fig. 6] Oriental Temples

### 3.3.2 도시화에 따른 인문학적 기록사진



1853년부터 시작된 근대적 도시계획으로 파리는 넓은 중세식 도시에서 산업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마차가 다니던 비좁은 골목길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넓은 도로로 바뀌고 도시 곳곳에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이 조성된다. 볼로뉴 숲과 뷔트 쇼몽 공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오페라 거리 주변에는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사선형 도로가 들어선다. 오스만의 도시계획으로 파리는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지만 그와 더불어 구도시의 곳곳에 스며있던 고급스런 풍광들은 조금씩 사라져 간다[16].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각종 문화재와 유적, 역사적 기념물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은 19세기 중반부터 큰 변화를 맞이한다. 사라지게 될 문명의 자료화는 사진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원근감을 왜

곡하지 않는 사실적인 태생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의 발명 이후에는 자료가치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삽화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대부분이 기록되어졌다. 19세기 후반의 유럽 주요 도시들은 광범위한 산업화를 통한 도시 재개발 계획들을 실현시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나 연륜 깊은 도시 구조가 다수 허물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와 런던과 글래스고[17] 등에서는 파괴의 운명에 처한 건축적 유산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1851년 프랑스 정부는 사적위원회를 발족시켜 프랑스의 건축물과 각종 문화재에 대한 시각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협회는 유명 사진가를 비롯하여 과학·예술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1851년부터 1860년까지 각종 자료사진을 제작했다. 위원회는 주로 이폴리트 바야르, 귀스타브 르 그레, 올리비에 메스트랄, 에두아르 발두스, 앙리 르 세크 등 다섯 명에게 기록 작업을 맡겼다. 르 그레와 메스트랄은 투렌과 아키텐 지방을, 앙리 르 세크는 샹파뉴와 알사스 로렌 지역을 맡았으며 발두스는 파리와 퐁텐블로, 프로방스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물을 기록하였고, 이폴리트 바야르는 노르망디를 촬영하였다[18].

1) 앙리 르 세크(Henri Le Secq)는 고딕 양식의 성당을 주로 촬영하였다. 1851년 아미앵과 랭스, 스트라스부르, 샤르트르 성당을 주로 기록했으며 이듬해 1852년부터 그는 파리의 중세식 풍광에 관심을 돌려 붕괴 직전의 중세 건축들을 촬영했다. 그는 건축물 전체를 드러내기 보다는 일부를 확대 촬영함으로써 건물 전체에 가려져 있던 디테일한 세부 모습을 드러내었고, 성당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벽면 조각들이 빛어내는 조형성을 극대화하는 세련된 화면 구성 솜씨를 발휘하였다.

Title	Church of Reims(Violin)	Chartreux(Stairs Tower)
Image		
	Henri Le Secq (1851)	Henri Le Secq (1852)
	Compose of excellent frame that illustrate detail of sculpture on the wall	Present detail by enlarged photo as take a picture part of building

[Fig. 7] Documentary Photography of Henri Le Secq



2) 샤를 네그르(Charles Negre)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고건축과 폐허가 된 풍경들을 200여점 이상 촬영하여 출판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851년 샤프트르 성당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은 정교한 디테일과 깔끔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앵그르의 아틀리에에서 화가 수업을 오래 받았던 그는 빛을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알았고 광선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해내는 비범한 재능과 사진에 수정을 가하여 사진을 소묘처럼 보이게 하거나 몇 장의 음화에 서 합성 이미지 제작방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Title	Saint-Trophime of Arles	Temple of Chartres
Image		
	Charles Negre (1852)	Charles Negre (1854)
	Excellent description of exterior wall detail as the first intaglio photography	Synthesize two prints after overlapping negative photos of temple and sky

[Fig. 8] Documentary Photography of Charles Neg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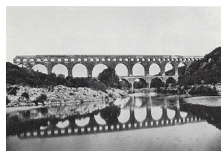
3) 샤를르 마르빌(Charles Marvilles)은 185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각종 유적을 기록해 역사자료로서의 사진의 가치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는 앳제식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로서 사진가의 중립적 시각, 대상에 접근하는 객관적 태도 등은 마르빌의 사진에서 이미 확립된 것이다. 그의 사진은 기록의 미학적 차원을 한 단계 끌어 올리면서 기록사진을 하나의 범주로 유형화시켰다. 1850년대 초에 이미 전문 건축사진가로 자리를 굳혔던 그는 1853년 이미 라인 강 유역과 피카르디 지방, 아미앵 지방 등지에서 유적 기록 작업을 했고, 1856년에는 노트담 대성당을 비롯한 파리의 유적들을 기록했으며, 1858년부터는 10년 동안 파리 구도시의 기록에 착수하였다.

그의 작업은 구도시의 도로와 골목이 도시 근대화 사업으로 사라지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구도시의 모습을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예술적 효과보다도 대상의 충실한 기록에 역점을 두었다.

Title	Street of Bourdone	Street of Glatine
Image		
	Charles Marvilles (1865)	Charles Marvilles (1865)
	Presentation of delicate texture of street paving by stone	Presentation of delicate texture of wall brick and signboard

[Fig. 9] Documentary Photography of CharlesMarvilles



4) 에두아르 발두스(Edouard-Denis Baldus)는 1853년 아를르와 님스, 아비뇰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기록했고, 이듬해 루브르 박물관 내외의 조각들과 건물장식 등을 촬영했으며, 루브르와 베르사이유 궁의 조각을 기록하는 공식 사진가로 위촉되었다. 1855년에는 파리와 칼레 사이의 풍광과 건축을 촬영하였으며, 파리와 마르세이유의 사이에 철도가 지나는 각 마을의 유적과 역사, 교량을 비롯하여 산업화의 흔적을 상세하게 보여 주었다.

Title	Castle of Avignon	Pont du Gard of Nimes
Image		
	E.-Denis Baldus (1851)	E.-Denis Baldus (1855)
	Picturesque photo by medieval castle around moat by perspective frame	Symmetrical roman aqueduct photo by arch reflecting from water

[Fig. 10] Documentary Photography of Baldus

5) 입체로 보는 도시전경 사진인 스테레오스코프는 현실을 공간적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스테레오 카메라는 나란히 촬영된 두 장의 사진을 눈과 같은 간격으로 벌려놓고, 그 사진을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효과를 내는 영상을 목표로 했다. 본격적인 붐은 1851년 런던의 국제박람회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스테레오 사진으로 만들어진 카드는 적당한 가격의 종이사진이었고, 먼 이국땅과 거리들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쌍둥이 렌즈 카

메라로 잡은 한 짝을 이루는 상은 입체사진경을 통해 보면 놀랄만한 삼차원적 환영을 빚어 시각적 정보를 기록하는데 이상적인 기술로서 기록사진에 필수적인 정보의 풍요함을 보여준다. 쌍안경의 시각을 재현 시키므로 입체경사진은 극적 효과를 빚어 널 뿐 아니라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크기가 실물대로 느껴진다.



Title	Pont Neuf	Picture of Stereoscope
Image		
	Hippolyte Jouvin (1860)	Unknown (1850)
	Create a moving scene as panoramic urban landscape with buildings, bridge	Take picture urban shape and space like snap photos in a moment

[Fig. 11] City Panorama of Stereoscope

### 3.3.3 건축과 도시에 대한 기술공학적 기록사진



19세기 중반 사진술이 아직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 때에도 사진은 건축과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당시 도시 곳곳에서 진행된 건설 현장의 기술 공학적 생생한 모습을 담았으며, 지속적인 건축 기술의 발달과 철과 유리와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만국박람회 등을 통해 수정궁과 에펠탑과 같은 대형 공학적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당시 열기구나 에펠탑과 같은 고층 구조물의 탄생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시점에서 도시와 건축물을 조감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림에 따라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전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 건축과 도시의 구축과정에 대한 기록으로서 도시의 구성물인 건축물과 구조물의 건설과정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활발히 전개된 건축연구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재현하여 기록하는 측량작업에도 사진이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탈보트(William H. F. Talbot)는 칼로타입으로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기념비 건설현장을 기록하였으며 메이던 Bauer(A. M. Bauer)는 쾰른 성당의 측량도를 완성하였다.

Title	Nelson's Column(Trafalgar)	Photogrammetry(Koln Ch)
Image		
	W. H. Fox Talbot (1843)	A. M. Bauer (1889)
	Construction site of Nelson's Column in Trafalgar(London) under construction	Engineering case of use photo in practical terms like survey architecture

[Fig. 12] Documentary Photography under Construction

2)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사진은 예술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화 시대의 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대공간의 기술공학적 건축물에 대한 사진들도 빈번해졌다. 영국에서 에드윈 메이얼(John Jabez Edwin Mayall)은 만국박람회 당시 축조된 수정궁의 내부를 촬영하였으며 필립 헨리 델라모트(Philip Henry Delamotte)는 1853년 신텐험(Syndenham)에 재 축성된 수정궁을 촬영하기도 했다.

Title	Crystal Palace	Crystal Palace
Image		
	J. J. Edwin Mayall (1851)	P. H. Delamotte (1853)
	Atrium Space by glass curtain wall and steel structure of Crystal Palace	Glass roof by steel truss and barrel vault of Crystal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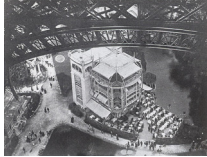
[Fig. 13] Documentary Photography of Mega Structure

3) 일찍부터 사진가들은 지상을 기록하려고 카메라를 갖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열기구를 이용한 도시 전경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기구에서 가스가 빠져 나오면서 사진 감광용기를 오염시키는 등 갖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마침내 나다르(Nadar)가 1858년 파리 근교의 뷔띠 비세트(Petit Bicêtre) 마을 상공에서 기구를 타고 최초의 항공사진을 제작하였다. 그 후 1868년 나다르는 파리상공에서 기구를 타고 다중렌즈카메라로 성공적인 파리 전경을 촬영하였다. 소설가 에밀 졸라(Emile Zola)는 1887년 사진술을 익혀 파리의 풍경들과 1900년 박람



회 을 소재로 대형사진을 촬영했으며 에펠탑 상부에서 지상을 조망한 다이내믹한 구도의 사진들을 작업하여 예리한 문학적 상상력을 사진에 접목시켰다.

였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한 건축사진은 그 이미지를 통하여 건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Title	Triumphal Arch(Aerial)	Eiffel Tower(Aerial)
Image		
	Nadar (1868)	Emile E.C.A. Zola (1900)
	Propose to aerial view of city for record visual informations on the ground	Contrast between steel structure and landscape of ground on top of Tower

[Fig. 14] Urban Landscape Photography

####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1839년 사진이 최초로 탄생한 이후 사진이 어떠한 관점과 시각에서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고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19세기 말의 건축과 도시가 사진을 통해 어떠한 이미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명기 건축사진은 당시 사진술의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본질적인 성격인 관찰과 기록의 관점에서 첫째, 당시 활발한 고고학적 관심에 힘입어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의 다양한 유적지를 탐사하여 이들 건축물들을 고고학적 기록으로 남겼으며, 둘째,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하여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라져가는 도시의 전경과 건축물을 기록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으로서 인문학적 기록으로 남겼으며, 셋째, 산업화로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나 소수민족의 토속적 건축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기록을 남겼으며, 넷째,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공학적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와 비행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시전경의 기록과 사진기술에 따른 건축측량 등의 기술공학적 기록으로 남겼다.

이와 같이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건축과 도시를 담아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건축과 도시를 다양하게 바라보고 이해하

#### References

- [1] Jin Dong Sun, "History of Photography", Prunsasang, p. 6, 2004
- [2] Camera inventors owe the create of photography to chemical manufacturing technology of Herscel(inventor of Hypo). He make terms of Negative and Positive, finally photography is stipulates in the world.
- [3] Camera Obscura was grand room that mans seating in the space at first, and after it was becoming potable small box in 17th.
- [4] Daguer obtained a patent about photography and earned a lot of money. French Government decided to give a pension to Daguer(6 thousands franc for year) and Niepce(4 thousands franc for year).
- [5] Heliograph: Helios/sun, graphos/graphic) Smelt asphalt at lavender oil and cover on the tin plate. The image get shown on the surface in according with bright side and shadow side.
- [6] The Daguerreotype image is formed on a highly polished silver surface, normally Sheffield plate. Daguerreotypes are unique images. It is not possible copy print and need a long time(5-60 minutes) for print.
- [7] (Calotype: kalos/beautiful, typos/impression) The calotype process produced a translucent original negative image from which multiple positives could be made by simple contact printing. This gave it an important advantage over the daguerreotype process, which produced an opaque original positive that could only be duplicated by copying it with a camera.
- [8] Haussmannization destroyed much of the medieval city. It is estimated that he transformed 60% of Paris's buildings. Notably, he redesigned the Place de l'Etoile, and created long avenues giving perspectives on monuments such as the Arc de Triomphe and the Opera Garnier.
- [9] Vanessa R. Schwartz, Spectacular Realistic, Mati, p. 47, 2006
- [10] Passage was small shopping mall at first. "It is the city and also world in miniature."
- [11] Kim Woo Ryong, "Classic Essays on Photography", Noonbit, Dominique Francois Arago Report( 1839), p. 21, 2006

- [12] Some of photographers represented directly objects and places in the world. It is called 'Topographic intention' and used the terms of 'Technical Photography'
- [13] Newhall Beaumont, "The History of Photography", Little Brown, p. 70, 2007
- [14] Jean Luc Dal, Park Ju Suk, "History of Photograph Art", Mijinsa, p. 13, 1999
- [15] Newhall Beaumont, "The History of Photography", Little Brown, p. 42, 2007
- [16] Park Pyung Jong, "Competition of Photography", Noonbit, p. 62, 2006
- [17] London Photographers Association published 120 photos between 1874 and 1886. Board of Glasgow requested make picture to Thomas Annan about street of slum district in Paris
- [18] Park Pyung Jong, "Competition of Photography", Noonbit, p. 66, 2006

---

**김 혁 기(Hyeok-Ki Kim)**

**[정회원]**



• 2002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